

리우 金 물꼬 튼 광주·전남 출신들



▶ 관련기사 2·18·20면

광주시청 박채순 남자양궁 감독 신뢰의 리더십으로 금메달 일귀 구례출신 김연경 배구 메달 사냥



박채순 감독 김연경 선수

남자 양궁 선수단은 리우 올림픽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한국의 메달 레이스의 정신히를 켰다. 여자 배구팀은 '속명의 라이벌'인 일본과의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4년 전 런던의 패배를 설욕하며 메달을 향한 순항을 시작했다.

두 경기의 공통점은 광주·전남 출신이 승리의 주역으로 한몫을 했다는 점이다.

김우진(24·청주시청), 구분찬(23·현대제철), 이승윤(21·코오롱엑스텐보이즈)의 남자양궁 대표팀이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사상 첫 양궁 전 종목 석권(남녀 개인전 및 단체전)의 첫 발을 댄 데는 박채순(51·광주시청 양궁 감독)한국 남자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의 든든한 신뢰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

그는 4년 전 런던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神弓 삼총사 7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삼보드로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남자양궁 단체전 미국과 결승전에서 우승한 한국의 김우진(왼쪽부터), 구분찬, 이승윤이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리우에서 남자양궁은 8년 만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선수단의 메달 레이스에 물꼬를 텄다. /연합뉴스

팀 코치를 맡았고 이번엔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흔들림 없는 레이스를 지휘했다.

그가 가장 걱정했던 건 바람과 경기장 분위기였다. 그는 이 때문에 결승전에 나선 선수들에 "고척돛 야구장 분위기를 생각하라. 관중들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런던올림픽 때나 리우올림픽 때나 야구장에서의 훈련이 선수들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바람을 걱정하는 선수들에게도

"우리가 8점을 쏘면 상대는 6, 7점을 쏘는 실수를 한다"고 힘을 실어주며 격려했다. 그는 8일 단체전 금빛 사냥에 나서는 여자 양궁 대표팀에 대해서도 "광주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기보배(28·광주시청)·최미선(20·광주여대) 등의 실력이 어우러지면 훌륭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전국 100등안에도 못들었던 기보배를 스카웃해 한국 양궁 대표팀의 에이스로 키워내고 최미선을 발굴, 세계 1위에 올려놓은 리더십을 보인 김성은(48) 광주여대 양

궁부 감독도 8연패 신화 달성을 노리는 여자 양궁의 숨은 주역이다.

여자배구팀이 4년 전 런던의 패배를 완벽하게 설욕한 데는 구례 출신의 김연경(28·페넬르바체)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구례에서 태어나 어릴 적 안산으로 이주한 그는 현재 세계가 인정하는 현역 최고 여자배구 선수로, 연봉도 120만 유로(약 15억6000만원, 추정치)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명실상부한 '월드 스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남자 양궁 첫 金... 메달 레이스 시작

정보경 여자유도 은메달

남자축구·여자배구 첫 승

한국 선수단의 리우 올림픽 '10·10'(금메달 10개·종합 톱 10)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금빛 레이스가 시작됐다. 남자 양궁 선수단이 리우 올림픽 양궁 전 종목 석권(남녀 개인전 및 단체전)을 위한 금빛 시위

를 당기면서다. 유도에서는 정보경(여·25·안산시청)이 '한국 1호 메달'을 일궈냈고 여자 배구는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패했던 일본을 상대로 '복수혈전'을 펼치며 순항했다.

김우진(24·청주시청), 구분찬(23·현대제철), 이승윤(21·코오롱엑스텐보이즈)의 남자양궁 대표팀은 7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보드로우 경기

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미국을 완파하고 시상대 맨 위에 섰다. 남자 선수단은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달미를 잡았던 미국을 세트 점수 6-0(60-57 58-57 59-56)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며 설욕했다. 여자 양궁 선수단은 8일 새벽 단체전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유도에서는 선수단 중 최단신인 정보경

이 여자 48kg급에 출전, 결승전에 올라 파울라 파레토(아르헨티나)와 맞붙었지만 안뒤축후리기에 당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대를 모았던 진종오(37·KT)는 런던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5위에 그쳤고 박태환은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 출전했으나 50명의 선수 중 10위에 머무르며 상위 8명이 나가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펜싱 여자 에페에 나선던 강영미(31·광주 서구청), 신아람(여·30·계동시청)은 각각 8강,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정현 각종 여론조사 선두 보수여당 첫 호남출신 대표 탄생 관심

새누리 내일 대표선출 전대



로 1위를 기록했다. 정병국 후보는 2위로 올라섰지만 15.5%에 불과했다. 이주영 후보는 10.6%를 얻어 한선교 후보(12.8%)에 게도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환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의원은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와 유세에서 "해방 이래 처음으로 호남 출신 보수정당 대표가 나와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바람을 일으켰었다. 이 같은 주장이 당원과 국민 사이에 설득력을 가진 때문인지 이 후보는 그동안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차지해왔다. 특히 지난 4일 여론조사에서도 당원과 국민 조사 모두 1위를 차지했다.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2~3일 새누리당 당원 선거인단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23.8%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주영 후보가 18.6%로 2위, 정병국 후보는 17.0%로 3위였다. 주호영(12.8%), 한선교(10.6%)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일반 국민 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정현 후보는 26.6% 지지율

를 얻어 한선교 후보(12.8%)에 게도 밀리며 4위로 내려앉았다. 주호영 후보는 7.6%로 최하위였다. 당원 대상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일반 국민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포인트였다.

물론 이 여론조사는 비박계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된 5일 이전에 실시된 것이지만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지지도가 지난 달 29일 정병국·김용태 의원의 단일화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진영에서 '덜 민감한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계파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호남표는 물론 영남표의 일정 정도만 흡수해도 당 대표 경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이 후보 측은 판단하고 있다.

▶ 4면으로 계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입추는 무슨 ... 폭염·열대야 다음주까지 계속

절기상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立秋·7월)가 지났지만 폭염의 위세는 다음주까지 꺾이지 않고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당분간 섬진강과 일부 해안지역을 제외한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고 밤 최저기온도 2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일시적인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5~40mm의 소나기가 예보되는 등 여름날씨 특성상 잦은 소나기

가 예상되지만 폭염의 위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라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광주의 경우 오는 17일(수)까지 낮 최고기온은 33~35도, 일 최저기온도 24~25도, 같은 기간 목포도 낮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이 각각 32~33도, 24~25도로 예보돼 당분간 추위를 가리지 않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여수도 같은 기간 낮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이 31~33도, 25~26도로 예보됐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파이팅 코리아 (한국시간) Rio2016

8일(월)
 02:25 ~ 여자 양궁 단체
 04:00 축구 대한민국 vs 독일
 9일(화)
 04:44 여자 양궁 개인 64강 기보배
 08:30 여자 배구 한국-러시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시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